

설명자료

배포일시	2021. 2. 28.(일) 17:00 (총 4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	담당자	과장 주형돈 사무관 조군석	전화번호 053-956-0365

북동산지, 경북북부내륙, 경북동해안 많은 비 또는 눈

- 경북북동산지 중심 많은 눈 주의
 - 3월 1일 밤부터 2일 아침 5~15cm, 대설 주의
- 경북북부내륙, 경북동해안 중심 많은 비/눈
 - 3월 1일 밤에 많은 비 집중(천등·번개, 돌풍 동반 주의)
 - 3월 1일 밤에 비→눈 형태 변화, 빙판길 주의



[3월 1일 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 대구지방기상청(청장 고정석)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후 3월 1~2일(월~화)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동해안지역은 30~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대구와 경북남부지역은 20~60mm의 비가 내리겠다. 한편, 경북북동산지에는 5~15cm,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동해안에는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 이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내리는 비나 눈으로 인해 대기의 건조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압계 전망]

- 대구지방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이 1일 오후에 서해상, 저녁~밤에 중부지방을 지나 2일 새벽 동쪽지방을 경유하여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 1일 아침~저녁에는 저기압의 오른쪽에서 발달한 따뜻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대구와 경북지역에 주로 비 형태로 내리겠지만,
- 저기압이 동쪽지방으로 이동하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됨에 따라 기온이 점차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1일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1일 밤~2일 아침에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강수 전망]

- 현재(28일 15시 현재) 경북 일부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후 3월 1일 새벽에는 대구와 경북 전지역에 확대되겠고, 2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으나, 경북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12~15시), 비구름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 특히, 1일 낮에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1일 낮~2일 아침, 강한 강수를 동반한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5~15cm의 많은 눈도 예상되어 대설특보 발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또한, 경북북부지역에도 3~8cm의 눈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예상 강수량 (3월 1~2일) >

- 경북북부내륙, 경북동해안: 30~80mm
- 대구와 경북남부내륙: 20~60mm
- 울릉도·독도: 10~40mm

< 예상 적설 (3월 1~2일) >

- 경북북동산지: 5~15cm
- 경북북부내륙, 경북동해안: 3~8cm
- 울릉도·독도: 1~5cm

- 이번 기간 동안, 경북남부내륙은 대부분 비가 내리겠으나, 일부 높은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며, 경북북부지역과 북동산지는 많은 눈(대설)이 예상되고,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며, 눈이 비교적 무거운 특징이 있어 축사 및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 2일 새벽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녹거나 조금 쌓인 가운데,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노면에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등, 빙판길로 인해 출근길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강풍/풍랑 전망]

- (강풍) 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는 2일 새벽~오후,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5~60km(초속 10~16m), 최대순간풍속 시속 75km(초속 20m) 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하는 한편,
- (풍랑) 1일 오후 동해상의 물결이 높아져 동해상은 3일까지 최대 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 특히 경북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넘거나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